

◎ 교회독포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사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운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양식 - 소신지서 강해

이전의 영광과 미래의 영광

(학개 2장 1 - 23절)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2. 이전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이 짓고 있는 성전은 비록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실제 내면적으로는 훨씬 더 영광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일것 없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함께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이전의 영광이 큰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새 출발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하시며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대상 28:20)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4)고 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0).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팔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5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 머물러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므로 승리의 삶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개서 2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서창에는 학개 선지자의 위대한 예언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6-7절).

메시아가 오시면 온 땅이 진동할 것이고 결국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헨델은 이 내용을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와 육지 뿐 아니라 만국을 진동시키겠다고 하시는 메시아는 큰 힘을 가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름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위를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1. 스스로 굳세어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의 주춧돌을 놓고 15년 동안 다룬 일만 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의 종 학개가 책망과 동시에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1절).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거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4절).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한 백성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성전 건축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은 4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강조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스스로 굳세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66년 전(BC 586년)에 파괴되었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금 짓는 성전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영광을 지금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울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옛날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추억하면서 패배감과 열등감에 빠져 현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하나였는데 지금 우리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교회는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는 한숨과 절망도 있다고, 사도들의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했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싸우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사도들의 교회는 많은 생명들이 회심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상실감에 빠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청에 대항하고 이신득의의 교리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지도자들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도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자신의 왜소함을 자책하며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내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 특별헌금한다

-1구좌 10만원, 5월9일(주)에-

오는 5월 24일(일)에 시작되는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한 특별 선교헌금을 오는 5월9일(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한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교회 지도자들을 깨워 복음 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김치 세미나에 참가 하는 교역자들의 왕복 비행기 값과 이곳에 체류중 숙식 문제를 위해 온 교회가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장한다.

김치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1구좌에 10만원으로 하고 정성을 모으되 형편에 따라 1/2구좌(5만원), 1/3 구좌(3만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참여 못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특별 헌금으로 김치 세미나를 개최해 온 교회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위임 목사 특별면담 시작되다

4월 27일(화)부터

이종운 목사는 우리교회 각 부서별 책임자들과 특별 면담을 통해 우리교회 목회 방향과 기도제목을 주시키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일을 시작한다.

해당 부서장들과 책임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

4월27일(화)부터 매주 화, 목, 금요일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시간을 통해 진행될 면담은 교회일꾼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제4기 단기 선교팀 훈련계획 확정

7월2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7시 503호실에서

제4기 단기 선교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503호실에 모여 파송을 위한 훈련을 받기로 하였으며, 각 주별로 교육받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기 단기선교 단원들은 강의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철저하게 기도로 단기 선교 준비에 임하도록 한다.

일시	강의내용	강사
4.22	단기선교의 목적과 방향	이규정 목사
4.29	선교란 무엇인가?	이종운 목사
5.6	방글라데시의 역사, 종교, 정치	최형열 집사
5.13	방글라데시의 기후, 의식주	최형열 집사
5.20	경건의 실제	윤영국 목사
5.27	복음제시-사영리	손재영 선생
6.3	팀워크의 중요성	오정수 장로

6.10	산상기도회	윤영국 목사
6.17	몽골단기선교	김사무엘 장로
6.24	팀워크 훈련의 실제	오정수 장로
7.1	캄보디아 단기선교	김광신 장로
7.8	부서별 준비모임1	부서별
7.15	부서별 준비모임2	부서별
7.22	전체점검과 복음전도	부서별
7.29	전체점검	오정수 장로

중등부 목요회 발족

중등부(부장: 노문환 장로 지도:윤영국 목사)는 중등부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선교 현장으로 삼아 학교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학원 복음회를 이루도록 돕기 위하여 지난주일(18일) '목요회'를 발족하였다.

목요회는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매일 매일을 주와 함께 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 운동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큰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를 바란다.

찬양대 양성반 개강

오늘 오후 1시 30분 601호실에서

제5기 찬양대 양성반이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개강하여 윤영국 지도목사의 영성 훈련을 첫 시간으로 7주간의 과정을 시작한다. 찬양대 양성반은 7주 동안 발성연습, 악보 보는 법, 지휘 보는 법 등 찬양대원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목을 박정선 장로의 지도하에 배우게 된다. 찬양대 양성반은 앞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 하고자 하는 분들의 예비과정으로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신혼가정부 특강

오늘 오후3시30분 702호실

신혼가정부는 박정원 집사(신소애산부인과 원장)를 강사로 모시고 '부부의 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갖는다. 오늘 오후 3시 30분 702호실에서 있으며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12차 KIMCHI 세미나 참가국을 위하여 기도 합시다

-라오스 편-



조선 말 정조 때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와 같은 일이 현재 라오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최근 기독교 신앙을 근절하기 위해 교회들을 폐쇄하고 신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협박하는 등 기독교도들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탄압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예수 종교를 믿는다"는 죄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거나 신앙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세계인권위나 국제관계 때문에 순교까지 이르진 않고

있지만, 성경공부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라오스인은 징역형, 외국인인 강제 추방하는 식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이토록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라오스 정부가 공산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라오스인이 불교도인 점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종교를 거부하는 공산당 사상 때문 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의 원인이 평등, 제사거부 같은 교리가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요소로 여긴 것처럼 라오스 역시 교회를 잠재적인 전복세력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공산 독재체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된 교회 산하에 다른 개신교 단체들도 들어오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이러한 통제의 눈을 피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어 현재 약 3~4만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으며 그 교세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외에도 라오스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화폐 가치는 날이 갈수록 급락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44%가 15세 이하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현재 라오스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인신매매에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작물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 마약을 몰래 재배해 해외로 팔고 있다. 태국으로 돈벌이를 나간 여자들은 곧 매춘부로 전락돼 포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폐해져 있는 그들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다. '기아를 위한 식량' 단체 등 많은 사역자들이 구제와 개발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나마 현지인들과 성경공부 모임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온갖 탄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 결국 기독교의 부흥을 일궈낸 우리나라처럼 라오스에도 복음의 꽃이 활짝 피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편집부(고은실)

화요정오음악회 기획 - 오자경 집사

화요정오음악회는...



우리교회의 열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화요 정오 음악회는 지역주민에게 기독교 문화와 교회음악을 보급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화요 정오음악회를 준비한 2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오자경 집사는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오음악회를 기획했다고 한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로 교회당이 열린 공간으로서, 또한 문화적, 역사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강남지역의 교회에서 이런 음악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로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문화가 점차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파이프 오르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이므로 이와 같은 악기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도 정오음악회의 취지이다.

화요 정오음악회는 봄, 가을로 열릴 예정이며 이번 5월에 열리게 될 음악회는 서울교회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

한 기념으로 오르간 솔로로 기획했다. 1부 예배 오르가니스트 강민정 선생의 연주로 시작될 봄 연주회는 최주용, 정경미, 김정은 등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막 귀국을 한 신예 연주자들로 오자경 집사는 연주자들의 자격 요건을 매우 신중하게 심사하였다고 한다.

오자경 집사(한국예술종합학교 오르간 학과의 부교수)는 지난 해 8월 서울교회에 등록을 했고 올 1월, 2부 예배 오르가니스트로 임명을 받았다.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유승현 집사와 사이에 다인과 호인 남매를 두었고, 유승현 집사는 오 집사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오자경 집사는 등록 후 줄곧 아이들과 함께 1부 가족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족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과 신앙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유했던 것이 참으로 좋았는데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연주하는 오르간에 대하여 늘 최고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한다.

그녀는 현재 한국 교회음악에 신디사이저와 같은 전자 악기가 대거 등장하고 찬양 또한 CCM, 혹은 복음성가로 흐르는 경향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에 의식 있는 교회 음악인들이 세상음악과 차별화된 정통 교회음악으로

한국 교회음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젊은 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끌어 가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있을 가을 연주회는 횡수도 늘리고 앙상블과 같이 부드러운 음악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화요 정오음악에 성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인근 회사 등에도 널리 알리므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한다.

허숙(편집부)

하나님 사랑 - 기도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최정인 성도(디아스포라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큰 죄의 늪에서 방황하던 어리석은 죄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와 복음의 말씀 위에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다섯 시간이나 걸린 까다로운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 아무 후유증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주 부끄러운 과거일 뿐입니다. 제 손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늘 집안 식구들의 성경이 놓여 있었고 찬송 또한 아주 가까이에서 제 귀를 울렸지만 이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장님, 귀머거리였으며, 또 술한 권면과 인도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영혼의 불구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을 병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술로 제 몸에서 거두어 내신 것은, 또 치료해 주신 것은 병소(病巢)가 아니라 오랜 세월 저지른 부끄러운 불신의 죄 덩어리였으며, 아둔한 고집과 교만으로 채워진 못된 악의 덩어리인 것으로 알고 있사오며, 그 자리에 새 삶을 살게 해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소망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엮여져 다시 채워주셨음을 이 둔한 죄인에게 알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되원 후 서울교회의 새가족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종 삼아 주시며 지금은 미력하나마 모세선교회와 디아스포라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복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더 큰 영광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만민에게 전도 - 70인 전도대

전도의 봄날이 오다

이영숙 집사(교구)

작년 9월 저는 나름대로 무기력해진 신앙을 바로 세워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 7기 전도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삶에 대한 생기와 열정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더불어 살았지만 정작 생명을 구하는 일과는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학문을 구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뛰어들었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전도학교에서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실제로 전도하며 한 주간의 전도생활의 결과를 사례로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노방 전도를 한 일이 없는 저로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부터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와 막상 사람을 만나도 배운 것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교회에 야간전도팀이 결성되었고 직장 때문에 낮 시간에 전도할 수 없는 저는 야간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수요일 야간 전도를 통해 저의 영적인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렵게 지나는 사람을 인도해 탁자에 앉게 하고 컵라면을 권하며 물을 부으면 먹기까지 10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주로 학생인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죄 사함과 영생을 말하고 나면 1-2분이 지나고, 나머지 시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늘 고민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수요일 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간혹 수요일 아침에 비가 와서 오늘은 전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싶으면 오후에 비가 개이고, 추웠다가도 밤이 되면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시간은 어김없이 가고 추운 겨울도 지나 바야흐로 저에게도 전도의 봄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수요일 그 시간에 라면을 먹으러 오는 단골도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초등학교생이 "자살을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뱉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인가 봅니다. 나는 애써 태연해 하며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단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이니 그럴 때는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주니 그 아이가 다시금 쾌활한 모습을 되찾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때 저는 수가 성에서 물 길은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절실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나 나름대로 전도의 방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 삶에 허무함과 공허감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저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입술에 말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누군지 모를 그 사람을 만날 설렘으로 집을 나섭니다.

청년부 손상근 성도(75도래) 취재

당신은 희망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남을 위해 눈물 흘리기 전에/나를 위해 먼저 눈물 흘리고, 남을 사랑하기 전에/내가 먼저 사랑 받도록 하소서/내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배를 띄울 수 있고/내 마음의 등불이 밝아야 길을 나설 수 있으며/내 가슴에 사랑이 있어야 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듯/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부끄러움을 먼저 알게 하시고/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나무라게 하소서/남 앞에 서기 전에 거울에 내 모습 비추어 보듯/남에게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나에게 먼저 해보고/그것이 아프면 부드러운 말로 고치게 하소서/나를 향한 기도를 통해 내가 이기적이 되거나/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고/언제나 겸손과 긍휼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진실로 사랑하게 하소서."

청년부 홈페이지 게시판(<http://seoulchurch.or.kr/sky>)에 한 달에 두어 편씩 아름다운 신앙시를 올려주는 형제가 있다. 준수한 외모와 돈독한 신앙을 가진 이 청년은 청년부의 헌신예배나 남성중창단 등에서 휠체어를 타고 등장하였던 바로 그 청년이다. 목회자인 이모부가 소개한 성경강해와 세미나 등으로 서울교회를 먼저 알게 된 손상근 형제는 2003년 여름 등록교인이 되었고, 신학공부를 위해 출국 준비중인 안용주 형제의 진실 된 권유로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청년부에도 속하게 되었다.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기 전에는 성공하고 나서 헌신하리라 다짐하던 신앙의 소유자였던 그가, 절대주권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쩌면 더 크신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을까.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평소 독실하셨던 어머니와 함께 3개월 간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하루 5번의 예배와 밤새도록 독방에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목상을 하며 잠깐씩 잠이 날 때마다 뎀을 들었던 것이 오늘의 그를 작은 시인으로 만들었다. 2-3년 사이 100여 편의 시를 지었는데, 고난 가운데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며 감사가 새어나올 때 적은 기록들이다.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록이며, 이후로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값진 믿음과 사랑의 기록이 될 것을 그는 소망한다. 언젠가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희망의 일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의 시 마지막에는 언제나 <당신의 희망>이란 말이 후렴처럼 적혀있다.

사고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을 묻자 손상근 형제는 가치관의 변화를 고백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교정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 보다 멀리 바라보게 되고 더 좋은 것으로 바뀌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해주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원을 나설 때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해진 그를 조금씩 기쁨과 감사의 그릇으로 바꾸어가셨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며 여기까지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

현재 컴퓨터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며, 퇴근 후에는 운동과 말씀묵상 등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손상근 형제는 청년부 남성중창단 헵시바와 찬양인도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그의 아름다운 시편들을 만나고 싶다면, 청년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시길!
나소정(편집부)

봄맞이 청소를 하면서

아직도 그 날을 기억합니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한티 공원은 보라 빛과 일락이 꽃망울을 터뜨려 그 향기로 온통 봄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의 서울교회 건축 부지는 지저분한 철근과 시멘트조각으로 또 동네 쓰레기까지 쌓인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축 반대로 온 교회는 교구마다 연합다락방으로 모여 철거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처음에는 실비가 내리더니 기도가 끝날 때 쫘 되어서는 큰 비가 내려 모두들 옷을 흠뻑 적시고 기도한 그날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산 교회 바로 그곳을 향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 했습니까?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자 기쁨과 감사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 감격으로 온 성도가 힘을 모아 지하실 청소부터 시작하여 추운 겨울날 화롯불을 피워놓고 교구별로 조를 짜서 밤새워 교회 지키는 일까지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헌신과 기도의 열정이 뿌리를 내려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방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삼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합니까? 교회 사랑의 열정과 헌신이 조금은 식은 것은 아닌지요. 얼마 전 여전도회별로 봄맞이 청소 할 기회가 있었습니

다. 청소를 하면서 그 큰 원기둥도 안아보고 손으로 달아보며 벽에 기대 보기도 한 오랜만에 교회 사랑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돌아보니 잘 정리된 부서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되어있지 않은 부서도 많았습니다. 지하1층의 쓰레기통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군데 군데 쌓여진 먼지들... 이날 전체적으로 어지럽혀진 교회 곳곳을 쓸고 닦으며 우리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교회 구석구석 무관심했던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돌아오면 특별히 음식 쓰레기 때문에 더욱 염려됩니다. 간식은 폐적하고 시원스레 펼쳐진 8층 만나 홀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드시면 여름 위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늘 주님이 계시고 생각만 해도 힘이 나며 앞으로 오고오는 후손들이 이곳을 향하여 생명을 얻고 꿈을 꾸며 비전을 얻는 축복의 터전이 아닙니까? 우리모두 합심해서 교회를 아끼고 섬기며 고상한 마음과 높은 질서의식으로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신동기(편집부)

- 단 신 -

강남노회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믿음생활에 헌신해 오시다가 은퇴하신 은퇴교역자, 은퇴 장로, 은퇴권사, 집사들의 위로회를 5월13일 오전 8시 온누리교회 주차장에서 갖고 순교 유적지를 순방한다.

동 정

■ 홍의만 선교사는 투병중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어 선교지로 가는 도중 30일(금)교회를 방문 한다.

■ 이사: 노병호, 홍지나 집사(3교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1803 전화:572-2044

■ 주간 식당봉사: 권사회(4월 25일) 빌립남성교회(5월 2일)

■ 금주의 식사: 이대중 성도(김영민 성도) 가정 (자녀 퇴원을 감사하며), 교회보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은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안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농어촌 선교팀을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